

Industry Brief

2018-12-05

Overweight (Maintain)

[증권] 11 월 지표 점검

10 월대비 부진한 시장 지표,
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

Brokerage 지표 점검: 회전을 하락으로 거래대금 감소

- 11 월 일평균거래대금은 8.4 조원으로 10 월대비 11.3% 감소하였음.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며 회전이 하락하였기 때문임
- 개인의 매매비중은 전월대비 1.7%p 상승하였지만 모든 매매주체의 회전이 하락하였기 때문임. 11 월 회전은 127.0%로 10 월 139.2%대비 하락하였음
- 신용거래용자는 10 월말대비 2.7%(KOSPI +1.2%, KOSDAQ+4.2%) 증가한 9.6 조원을 시현하였음. 반면 예탁증권담보대출은 10 월말 대비 1.3% 감소하며 전체 대출규모는 10 월 수준을 유지하였음
- 회사별 약정 점유율은 삼성, 미래대우, 한국은 각각 5.6%, 12.0%, 5.4%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NH 투자증권은 1.0%p 하락, 키움증권은 0.5%p 상승하였음.
- 변동성 축소와 연말 일부 외국인투자자의 Book closing 이 진행되며 거래대금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됨

Trading 및 상품 손익 지표 점검: ELS 발행 및 조기상환 부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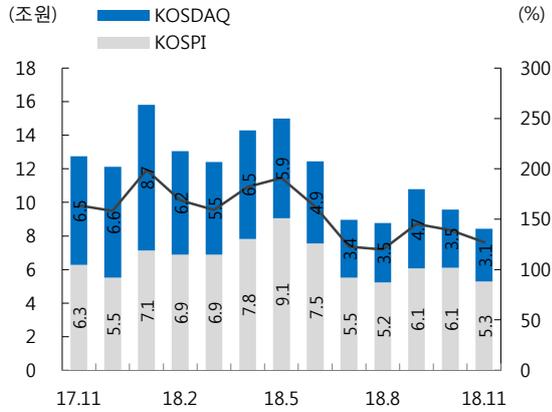
- 11 월말 국고 1 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되며 전월대비 0.3bp 상승하였지만 3 년물 금리는 4.7bp 하락하였음. 채권 트레이딩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따른 스프레드 마진 악화 측면에서는 부정적임
- 11 월 업계 전체 ELS 조기상환은 1.9 조원으로 전월 4.1 조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. ELS 발행 또한 4.9 조원 수준으로 전월 5.8 조원 대비 감소하였음. 3 분기 매우 부진하였던 ELS 조기상환 및 발행이 10 월에는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부진한 흐름을 시현하였음
- 회사별 11 월 ELS 조기상환 규모는 삼성 1,723 억원, 미래대우 2,559 억원, NH 1,637 억원, 한국 706 억원, 키움 370 억원으로 전월대비 각각 74.3%, 32.5%, 53.8%, 83.2% 감소하였으며 키움증권만 전월 113 억원대비 크게 증가하였음

낮아진 시장 변수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할 때 11 월 지표 부진의 영향은 제한적

- 10 월 주식시장 급락 이후 11 월에 KOSPI 는 +3.3%, KOSDAQ 은 +7.26% 반등하였으며 증권업종은 11.4% 상승하였음.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증권업종의 반등이 시현되었다고 판단됨
- 11 월 시장 지표가 10 월 대비 부진하였다는 측면에서 증권업종의 반등폭이 단기적으로 제한될 수 있겠지만 4 분기 비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증권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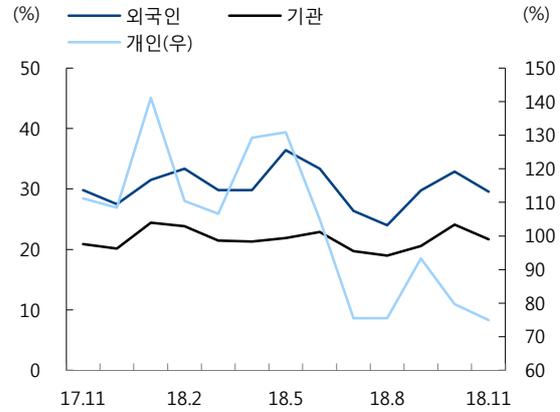
Brokerage 관련지표

일평균거래대금: 8.4 조원으로 전월대비 11.3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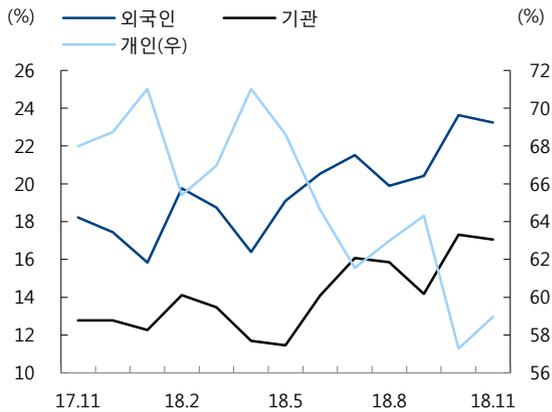
자료: KRX, 하이투자증권

회전율 추이: 모든 매매주체의 회전율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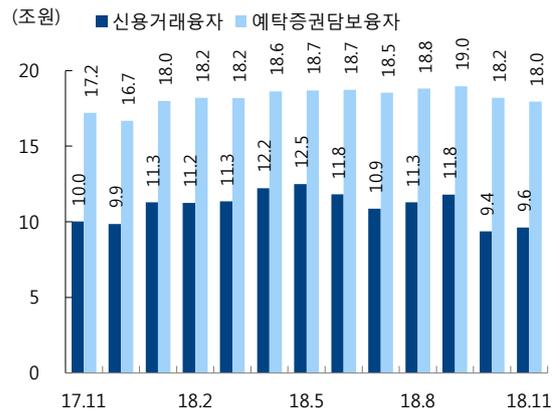
자료: KRX, 하이투자증권

주체별 매매비중 추이: 개인 매매비중 소폭 회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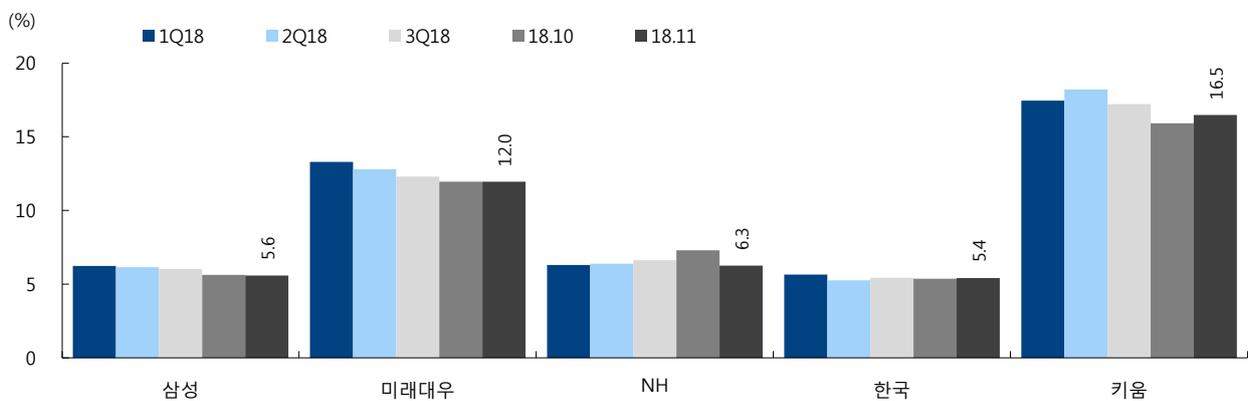
자료: KRX, 하이투자증권

신용잔고 및 예탁담보대출: 10월과 유사한 수준 유지



자료: 금투협, 하이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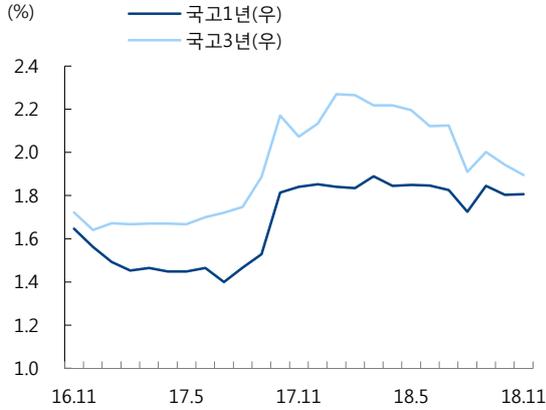
회사별 Brokerage 약정 점유율 추이: 10월대비 NH는 감소, 키움은 증가



자료: Check, 하이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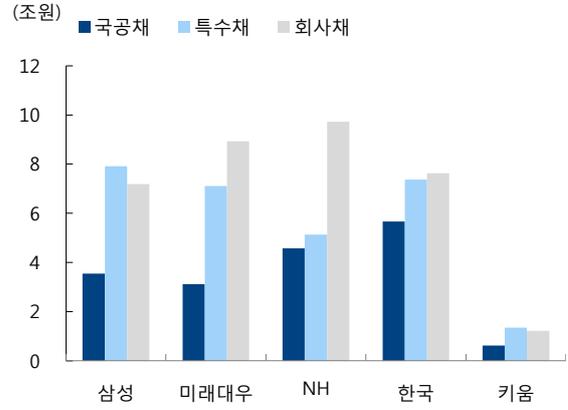
Trading 관련지표

채권금리: 1년물은 +0.3bp, 3년물은 -4.7b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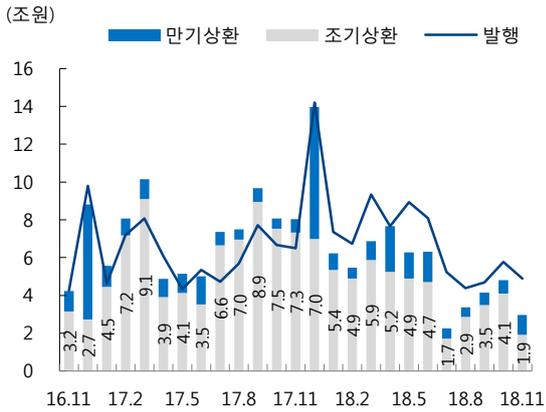
자료: BOK, 하이투자증권

증권사별 채권보유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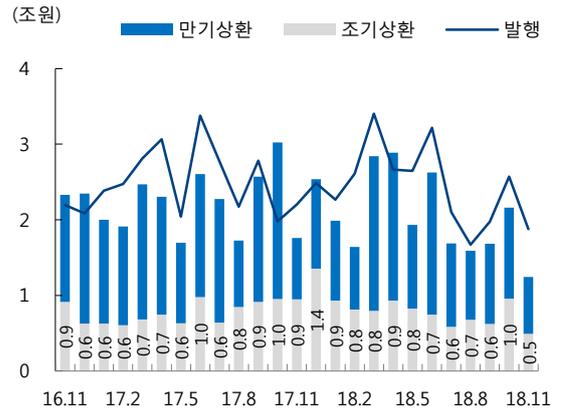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ELS 조기상환: 1.9 조원 수준으로 전월대비 급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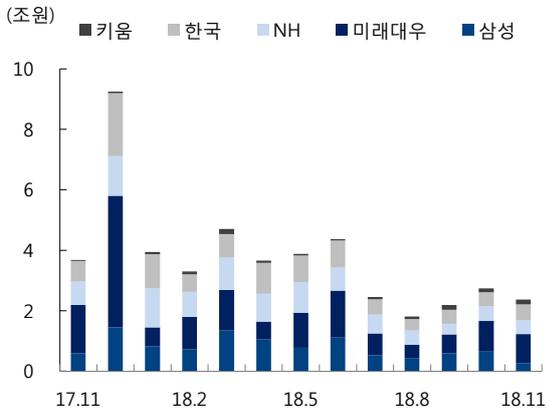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DLS 조기상환: 평월 수준으로 회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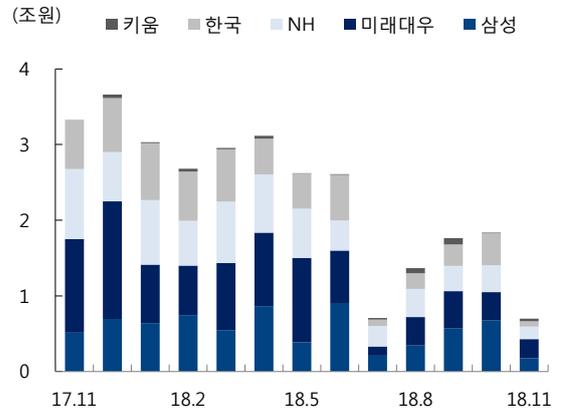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회사별 ELS 발행추이: ELS 발행 회복 지연


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회사별 ELS 조기상환 물량: 2018년 7월 수준으로 급감


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

- ▶ 회사는 해당 종목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(작성자 : 강승건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)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.
 - Buy(매수): 추천일 증가대비 +15%이상
 - Hold(보유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 ~ 15% 내외 등락
 - Sell(매도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이상
2. 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
 - 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 (중립), - Underweight (비중축소)

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-09-30 기준

구분	매수	중립(보유)	매도
투자의견 비율 (%)	90.1%	9.9%	-